

전북경제 책임지는 금융전문가로 '스킬업'

농협은행 전북본부, 임직원 대상 금융교육 실시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19일 지역본부에서 전북 관내 사무소장·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전문가 스킬업 과정' 교육을 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농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농협은행, 도민과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농협은행을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임직원들을 금융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9일·20일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에는 농협은행 이대훈 은행장이 참석하여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협은행의 역할'에 대해 특강을 했고 또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 강의로

진행했다.

김장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전북 관내 시군지부장·지점장 등 총 100여명의 교육 참석자들은 강의 청취 후 최근 전북지역의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협은행의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장근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농협은행은 (농업, 농촌, 농민) 전북지역을 지키는 큰 우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며, "농협은행의 존재 목적을 늘 생각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농협은행을 만들기 위해 각 사무소장들은 지역경제 전문가가 돼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9일 지역본부에서 전북 관내 사무소장·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전문가 스킬업 과정' 교육을 했다.

전북은행, 설 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전달식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 21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와 함께 '설 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물꾸러미 나눔 행사를 마련,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40여명은 1,600여상자를 포장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김, 당면, 설탕, 커피, 캔디, 치약, 칫솔, 부침가루, 라면, 간장 등 총 10종의 생필품이 가득 담겨있는 선물꾸러미를 시, 군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선물꾸러미를 통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전북은행 임직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지속적인 지역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는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설 명절을 맞이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대전지역을 찾아 떡국과 생필품 선물세트를 전하는 봉사활동과 1,600상자의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릴레이 나눔 행사를 펼쳐 이웃사랑의 온정을 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가벼운 치매 증상부터 단계별 추가 보장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백세시대NH치매보험' 전북 1호 가입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이 전주농협에서 NH농협생명(대표이사 홍재은)의 신상품 '백세시대NH치매보험'에 전북 1호로 가입했다.

'백세시대NH치매보험'은 NH농협생명 출범 이후 첫번째 선보인 치매보험으로,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가입의 폭을 확대한 상품으로써 2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유재도 본부장은 "농협생명의 치매

보험은 가벼운 치매 증상부터 단계별로 추가 보장이 이뤄지고 무엇보다 중증치매 진단 시 매월 생활비가 종신까지 지급된다는 점이 장점이라 가입하기로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백세시대NH치매보험'은 고령층·농업인이 많은 농협생명의 특성을 십분 반영한 상품이다.

특히,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고령자라도 실제 치매와 관련 있는 2가지 질문에

/김영태 기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벼운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보장, 중증치매 진단 확정 시 보험료 납입면제와 함께 매월 120만원씩 종신토록 지급되는

간병생활자금이 특징이다.

치매보장 특화상품답게 차별화된 특약도 강점이다. 안심케어 특약은 치매환자의 부양자(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피부양자(부모)에게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을 10년 확정 지급하며 증증알츠하이머 치매보장특약, 파킨슨병보장특약에 선택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생명 전북총국 이숙 총국장은 "백세시대NH치매보험은 고령층이 많은 농업인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출시되어 보장성자산에 비교적 소외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지난 1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도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19 희망나눔 신년음악회'가 열렸다.

창립 50주년, 감사한 마음 담아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신년음악회'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 JTV전주방송(대표이사 김택근)과 함께 지난 1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도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19 희망나눔 신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해년 새해에 열린 신년음악회는 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 특별한 해를 맞아 전북도민과 소통하고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마련됐다.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를 배경으로 소프라노 신델라, 테너 김남두, 가수 알리, 박상민 등 국내 최정상급의 성악가와 대중가수가

품격 높은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전북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실천, 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의 실현 등으로 50년을 넘어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유일의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은 전북도민들이 새해를 맞아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를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협사료 전북지사 목표 달성 결의대회 가져

농협사료 전북지사(지사장 최현규)는 17일 전북 부안에 소재한 농협보험수련원에서 '2019년 사업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사료 전북지사 임직원 40여명과 함께한 결의대회는 "참가자들은 2019년 사업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여 변화하는 미래 축산환경에 대비하고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이라는 시대적 소명 아래 농·축산인을 위한 본연의 업무와 사업추진에 매진 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축산환경에 맞는 사료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축산능률로부터 무한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품질혁신과 서비스 확대에도 더욱 더 노력 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사료 전북지사가 지난 17일 전북 부안에 소재한 농협보험수련원에서 '2019년 사업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